

# 다니엘 보이드 첫 국내전

January 06, 2020 | 우문기 기자

## 다니엘 보이드 첫 국내전

###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 양극 사이에서의 호기심



다니엘 보이드 작

호주 케언즈에서 출생해 시드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는 빛과 어둠, 지식과 무지, 정보와 비정보 등 양극 사이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호기심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작가는 인류의 집단적 지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복수성'(Plurality)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호주 원주민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에 맞춰 호주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꾸준히 재해석하고 있다. 그의 관점은 유럽 중심적 역사 서술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며 호주의 역사 형성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다양한 이미지를 빌려 회화를 제작하고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다니엘 보이드의 국내 첫 개인전 '항명하는 광휘'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기존의 낭만적인 개념을 경계하며 일반적인 역사관이 놓친 시선을 찾아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현재 세계의 질서를 재고할 수 있는 신작들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 캔버라의 호주 내셔널 갤러리 등 다수의 박물관과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2월 29일(토)까지. 문의 051)758-2239, 우문기 기자